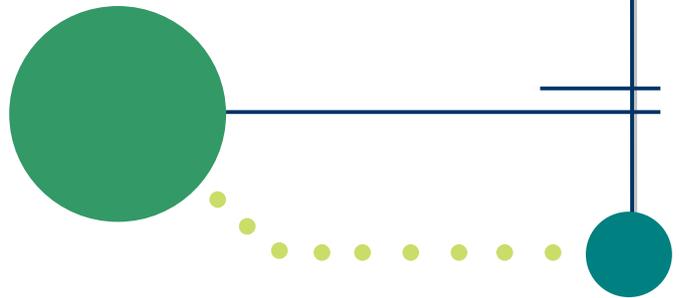




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

- 게이머 겨냥한 SNS 브라질서 출범
- 브라질 게임쇼 'Rio Game Show', 11월 말 제2회 행사 개최
- 베네수엘라, 폭력게임 판매 행위에 최대 5년 실형



게이머 겨냥한 SNS 브라질서 출범



게이머 전용 SNS 사이트 'Komuna' 오픈

- ◆ 게이머 대상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'Komuna'가 브라질 시장에서 문을 열었다고 현지웹진 GameReporter가 지난 11월 17일 보도
 - 다양한 게임 플랫폼을 아우르는 해당 SNS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은 게임 커뮤니티를 생성하고, 질문을 하거나 사진/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으며 게임 및 기타 관련 상품의 판매도 할 수 있음
 - Komuna는 Sony, Microsoft 등과의 연계를 통해 PS3 및 Xbox 360의 공식 타이틀에 대한 정보도 제공
 - Komuna는 개장 이후 불과 하루 만에 PS3 관련 커뮤니티만 22개가 만들어질 정도로 현지 게이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

Table 브라질 SNS 사이트 'Komuna'의 스크린샷



www.komuna.com.br

브라질 게임쇼 'Rio Game Show' , 11월 말 제2회 행사 개최

🌐 'Rio Games Show' 2회 개최 확정



- ◆ 지난 6월 개최돼 호평을 받은 브라질 게임쇼 'Rio Games Show'가 제 2회 개최를 앞둔 가운데, 개최지로 SulAmérica의 컨벤션 센터가 낙점되었음
 - 제 2회 'Rio Games Show'는 오는 11월 28~29일 이틀 간 열리며(오전 11시~오후 8시), 약 6,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
 - 이번 행사는 최초의 비디오게임 'Odyssey'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'게임의 아버지' Ralph Gaer(향년 87세)도 참관 예정
 - 그래픽카드 제조업체 Nvidia의 3D Vision 부스, Hewlett-Packard의 RGS 강연회, 'Winning Eleven' 게임 대회, 게임의 역사 전시회, 'Beatles: Rock Band' 게임이 활용된 밴드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됨
 - 티켓 가격은 현장 구매 기준 25달러이며, 할인 티켓 예매로 20달러에 구매가 가능함

 riogameshow.com

베네수엘라, 폭력게임 판매 행위에 최대 5년 실형



● 폭력게임 판매에 강력한 제재 방침

- ◆ 최근 베네수엘라 의회가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게임 및 장난감 등을 판매 및 유통하는 소매상에 대해 최대 5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확정/가결했다고 GameStop 등 해외게임웹진들이 지난 11월 5일 보도
 - 해당 법률은 게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류 장난감, 비디오물 등을 제작, 수입, 배포, 판매,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
 -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Hugo Chavez 대통령은 ‘폭력적인 게임이나 장난감을 판매하는 소매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여기는 이기주의적 생각을 지니고 있다’면서 ‘이번 법안으로 폭력적인 게임이나 완구를 금지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’이라고 밝힘

● 배경

- ◆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전에도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들을 문제 삼은 바가 있는데, 특히 ‘Mercenaries 2: World in Flames’의 개발사인 Pandemic Studios와 발매사인 EA에 대해 ‘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’며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음
 - ‘Mercenaries 2: World in Flames’(PS2, PS3, Xbox 360)은 베네수엘라를 배경으로 권력에 굶주린 폭군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의 3인칭 슈팅 게임
- ◆ 지난 여름 1차 가결을 거쳐 이번에 확정된 폭력게임 금지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베네수엘라의 치안 부실로 인한 강력범죄 급증이 깔려 있음
 -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인사들은 1999년 Chavez 집권 이후로만 10만 명이 범죄로 목숨을 잃었다며 현정권의 무능을 성토